

미나미 신엔(남쪽 정원)

전통적인 회유식 정원(내부를 산책하면서 감상하는 정원)인 미나미 신엔은 헤이안 시대의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나미 신엔은 눈앞에 펼쳐지는 숲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곳의 나무는 야에베니시다레라고 불리는데, 가지가 축 늘어진 시다레 형태의 겹벚나무인 야에자쿠라의 일종으로 이 지역에서는 보통 4 월 중순에 개화 시기를 맞이합니다. 부드럽게 아래로 드리워진 가지에 일본 전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왕벚나무인 소메이요시노보다도 훨씬 짙은 분홍빛의 꽃이 피니다. 헤이안 신궁 앱을 다운로드하면 AR(증강현실)을 통해 개화 시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나미 신엔을 산책하다보면 다른 종류의 나무와 꽃들도 감상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헤이안 시대의 유명 문학과 일본의 전통 정형시인 와카에도 등장하는 식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나미 신엔에는 정해진 경로가 없습니다. 회유식 정원은 여러 방향으로 갈라지는 좁고 굽이진 오솔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감상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닫혀 있는 공간을 연출하고자 뽕뽕이 심은 나무와 꽃들 사이로 작은 시냇물이 흐르며 정원 구석구석까지 물을 흘려보냅니다. 이 같은 방식의 정원은 상류 계층의 즐거움으로써 정원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예술에 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방문객과의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